

홍태유(洪泰猷)의 <유설악기(遊雪嶽記)> 연구

유정열*

- I. 들어가는 글
- II. 홍태유의 산수 애호와 설악산 유람
- III. <유설악기>의 특징
- IV. 마치는 글

<국문초록>

본고는 설악산 유기사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인 홍태유(洪泰猷)의 <유설악기(遊雪嶽記)>를 고찰했다. 가화를 겪은 이후 산수유람 등에 몰두했던 홍태유는 1709년 가을에 이종사촌 임적(任適)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설악산을 유람했다. 홍태유가 설악산을 유람한 데는 김수증(金壽增)과 김창흡(金昌翕) 등 장동 김씨(壯洞 金氏) 문인들의 영향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설악기>를 고찰한 결과 이 작품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닌 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로 유람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전개가 설악산 유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또 유람의 과정이 단절되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설악산 산수미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묘사와 서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이 구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앞서 밝힌 특징들에 상응하게 설악산 산수미를 세상에 알리고자 한 뚜렷한 창작 의식이 작품의 저변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설악기>는 설악산 유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로 설악산 유기 창작이 하나의 뚜렷한 흐름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참여한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작품이라는 점, 둘째로 곡백담[백담계곡]에서 봉정암에 이르는 구간의 산수미 및 유람 방법을 체계적으로 밝힌 첫 작품이라는 점이다.

핵심어 : <유설악기>, 설악산, 홍태유, 산수미, 장동 김씨, 유람의 재구성

1. 들어가는 글

1709년 가을 홍태유(洪泰猷, 1672~1715)가 설악산 유람을 다녀왔다. 이 사건은 설악산 유람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일이다. 왜 그러한가? 단순히 홍태유가 당대까지만 해도 흔히 않았던 설악산 유람을 다녀온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²⁾ 그것은 무엇보다 그가 그 유람 경험을 바탕으로 <유설악기(遊雪嶽記)>라는 유기를 창작했는데, 이것이 설악산 유기사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유설악기>는 이미 여러 차례 번역되어 소개된 바 있다.³⁾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기를 번역해 소개한 책들에 들어가 있는 점은 <유설악기>가 설악산 유기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⁴⁾ 아울러 한 잡지의 기사를 통해 홍태유의 설악산 유람 과정과 내용 등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도 했다.⁵⁾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설악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이는 일단 설악산 유기에 대한 연구가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 연구도 장동 김씨(壯洞 金氏) 문인들의 작품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⁶⁾ 또한 작자 홍태유가 당대 그렇게 잘 알려진

2) 본고에서 사용하는 ‘설악산 유람’은 금강산 등지를 유람하려 가는 도중 잠시 거쳐 가는 형태의 유람이 아닌 설악산을 주요 목적지로 삼아 다녀온 유람을 이른다.

3) 이 작품을 번역해 수록한 대표적인 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소개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편저, 『국역 유산기』 4, 한국학술정보, 2015, 28~38면; 권혁진·홍하일·최병현·허남욱 편역, 『조선 선비, 설악에 들다』, 문자향, 2015, 126~134면; 심경호, 『산문기행: 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307~317면.

4) 본고에서 사용하는 ‘설악산 유기’는 설악산 유람을 주요하게 다룬 작품을 말한다.

5) 박정원, 『유산록 따라 가는 산행 <5>, 홍태유 <설악유람기>』, 『월간 산』 576호, 조선일보사, 2017.

문인이 아니었다는 점,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현재 시작 단계에 있다는 점 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⁷⁾ 이에 본고는 <유설악기>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을 수행함으로써 설악산 유기 연구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조선 후기 문학사에 홍태유라는 문인의 존재를 더욱 분명하게 각인시키고자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단 홍태유의 설악산 유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개관함으로써 작품 이해의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그런 다음 ‘유람을 구성하는 방법’, ‘산수미를 드러내는 방법’, ‘창작 의식’의 측면에서 <유설악기>의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설악기>가 설악산 유기사에서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지를 생각해 볼 것이다.

II. 홍태유의 산수 애호와 설악산 유람

“공(公: 홍태유)은 아름다운 산수를 몹시 좋아해 산수로 이름난 곳을 듣기만 하면 행장(行裝)을 싸서 떠났다”와 같은 증언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홍태유는 본래 산수를 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⁸⁾ 그런데 부친 홍치상(洪致祥, 1654~

6) 장동 김씨 문인들의 설악산 유기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풍기,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의 명승의 구성과 탄생: 설악산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제31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3; 안득용, 『金昌翁 <東遊小記> 연구: 可遊者記의 서술 양상과 그 흐름에 대한 고찰을 곁여』, 『고전과 해석』 제20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6. 아울러 부분적으로 장동 김씨 문인들의 설악산 유기를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안득용,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山水遊記 研究: 農巖 金昌協과 三淵 金昌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한영, 『三淵 金昌翁의日記體 遊記 研究』,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황인진, 『谷雲 金壽增의 山水文學 研究』,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한편 설악산 유기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근태·이훈, 『설악산 遊記文 원문 및 해제』, 『강원문화연구』 제31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12; 허남옥, 『조선시대 雪嶽山 遊山記의 개괄적 검토』, 『한문고전연구』 제30집, 한문고전학회, 2015.

7) 홍태유 문학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구본현, 『耐齋 洪泰猷 漢詩 研究』, 『한국한시작가 연구』 제14집, 한국한시학회, 2010; 유정열, 『耐齋 洪泰猷 산문의 주제 의식 연구』, 『어문연구』 제184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8) “公酷好佳山水, 聞一丘一水之以勝名者, 輒理裝而往.”(洪泰猷 <遺事>, 『耐齋集』 附錄, 한국문집총간 187, 100면) 번역은 유정열, 위의 논문, 354면의 것을 가져오되 조금 수정했다. 이하 『내재집』 수록 글의 인용면수는 모두 이 책의 것이다. 한편 “公喜山水”(任適, <祭耐庵文>, 『老隱集』 卷3, 한국문집총간 속 66, 300면)라는 증언도 보인다. ‘公’은 홍태유를 가리킨다. 이하 『노은집』 수록 글의 인용면수는 모두 이 책의 것이다.

1689)이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에 연루되어 사사된 사건을 겪은 이후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 한층 더 산수 애호에 몰두하게 된 듯하다. 그리하여 선묘(先墓)가 있는 여주 이호(梨湖) 부근으로 이주해 그곳의 산수를 누리는 한편 전국의 산수를 두루 유람하기도 했다.⁹⁾ 대표적으로 홍태유는 1702~1705년 사이에 개성과 그 인근 지역, 오대산(五臺山), 금강산(金剛山) 등을, 1708년에 제천(堤川), 영월(寧越), 단양(丹陽) 등을 유람했다.¹⁰⁾ 그리고 마침내 1709년 9월에는 설악산 유람을 다녀온 것이다.¹¹⁾

설악산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산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사시사철 유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설악산의 존재가 역사상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이 여기에 은거하면서부터였다.¹²⁾ 그러나 설악산은 부근에 있는 금강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유람객이 많이 찾는 곳은 아니었다. 즉 금강산에 비해 유람 장소로서 각광받아 온 곳은 아니었던 것이다. 18세기를 전후해 장동 김씨 문인들에 의해 설악산의 존재가 다시 한 번 부각되며 당대 문인들 사이에서 이 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는 했다. 그러나 홍태유가 유람한 18세기 초에도 여전히 설악산 유람이 금강산 유람처럼 유행하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홍태유는 어떻게 설악산을 유람하게 된 것일까? 다시 말해 단순히 산수를 애호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외에 그곳을 유람하게 된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와 관련해 앞서 언급한 장동 김씨 문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목할 인물은 김창국(金昌國, 1644~1717)이다. 김창국은 홍태유의 이모부로 인제현감을 지냈다.¹³⁾ 설악산은 인제(麟蹄)와 양양(襄陽) 등지에 걸쳐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홍태유는 김창국으로부터 설악산 산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

9) 가화를 겪은 이후의 산수 애호 면모에 대해서는 유정열, 앞의 논문, 354~355면 참조. 아울러 홍태유의 생애에 대해서는 구분현, 앞의 논문, 118~120면 참조.

10) 예컨대 1702~1705년 사이에 지은 시 중에 <滿月臺>, <五臺山月精寺>, <楡岾寺>, <投宿表訓寺> 등의 작품이 있다는 사실, 1708년에 지은 시 중에 <義林池>, <九日寧越途中>, <龜潭> 등의 작품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11) 설악산 유람의 정확한 시기는 任適, <東遊日記>, 『老隱集』 卷3, 392~395면 참조.

12) 김풍기, 앞의 논문, 358면 참조.

13) 홍태유와 김창국의 관계는 이경수, 『설악산 대승폭포의 한시 표현』, 『인문과학연구』 제60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48면 참조. 그리고 김창국이 인제현감에 제수된 것은 1696년 5월이다(『承政院日記』 肅宗 22년 5월 20일 기사 참조).

음 직하다. 아울러 김창국의 부친인 김수증(金壽增, 1624~1701)도 주목해야 할 인물이다. 그는 1691년과 1698년에 설악산을 유람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유한계산기(遊寒溪山記)>와 <유곡연기(遊曲淵記)>를 창작한 바 있다. 숙단할 수는 없지만 홍태유는 이 작품들을 읽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창국의 사촌인 김창흡(金昌翕, 1653~1722)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태유와 김창흡 사이에 평소 교유가 있었는지는 미상이다. 다만 김창흡이 홍태유의 시문을 읽고 그에게 시문 학습에 대한 가르침을 준 바 있다는 증언이 존재하는 점,¹⁴⁾ 그리고 홍태유와 김창흡이 인척 관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창흡은 당시 설악산에 은거 중이었으며, 홍태유가 유람을 간 무렵 그곳에 영시암(永矢菴)이라는 새로운 정사(精舍)를 막 건립했다.¹⁵⁾ 홍태유가 삼연정사(三淵精舍)라 칭한 영시암은 그가 설악산 유람 때 주요하게 방문한 곳 중 하나였다.¹⁶⁾ 그리고 김창흡은 1705년 설악산에서의 생활을 <설악일기(雪岳日記)>라는 제목의 글로 기록한 바 있는데, 홍태유는 이 글 또한 읽었을 수 있다. 요컨대 홍태유는 영시암을 방문하는 한편 그 기회에 전문과 글 등을 통해 접한 설악산을 직접 둘러볼 요량으로 유람을 떠나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이렇듯 홍태유의 설악산 유람에는 장동 김씨 인물들과의 관계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유람에 대해 개관하기로 한다. 먼저 홍태유가 혼자가 아닌 세 명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유람을 다녀온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진백(李振伯: '振伯'은 자), 홍익보(洪益普, 1660~1736), 임적(任適, 1685~1725)이 그들인데, 그중 이진백은 정확히 어떠한 인물인지 미상이다. 홍익보는 여주에 거주하던 홍태유의 종인(宗人)이다. 그는 홍태유와 친밀하게 지냈으며 역시 산수 유람을 매우 좋아했다. 이 때문에 홍태유는 유람을 떠날 때마다 반드시 그와 동행했다고 한다.¹⁷⁾ 마지막으로 임적은 홍태유의 이종사촌 동생이다. 당시

14) 洪晉猷, <遺事>, 『耐齋集』附錄, 99면.

15) 영시암은 1709년 9월 무렵 완공되었다. 홍태유가 유람을 떠나기 직전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 영시암의 완공 시기는 이승수, 『三淵 金昌翕 研究』, 이화문화출판사, 1998, 213면 참조.

16) 다만 그곳에서 김창흡을 만나지는 못한 듯하다. 이 사실은 <유설악기>에 김창흡과 만났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 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임적의 유기에도 김창흡을 만났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17) 이러한 사실은 洪泰猷, <送道遙子往遊嶺南序>, 『耐齋集』 권3, 56면 참조. '道遙子'는 홍익보

여주에 거주 중이던 그는 그곳에 사는 동안 홍태유와 함께 산수 유람을 다니기도 했다.¹⁸⁾ 그는 이 유람 경험을 바탕으로 <동유일기(東遊日記)> 등의 유기를 창작했다.

아울러 설악산에서 홍태유 일행에게 길안내를 해 준 것은 성문(省文)과 의준(義俊)이라는 승려였다.¹⁹⁾ 두 사람은 주요 유람 장소 중 하나였던 심원사(深源寺)의 승려들로 추정된다.

이어서 유람의 여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설악기> 속 여정을 대략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제 → 삼차령(三叉嶺) → 난계역(亂溪驛) → 갈역촌(葛驛村) → 곡백담(曲百潭) → 심원사 → 삼연정사 → 유흥굴(兪泓窟) → 십이폭동(十二瀑洞) → 봉정암(鳳頂菴) → 석가사리탑(釋迦舍利塔) → 폐문암(閉門巖) → 유흥굴

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일단 주요하게 유람한 곳이 현재 ‘내설악’이라 일컬어지는 권역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유람 과정에서 곡백담, 십이폭동, 봉정암 등 내설악의 승경을 두루 방문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유설악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동유일기>를 보면 홍태유 일행은 내설악의 필수 유람 장소 중 하나인 한계폭포(寒溪瀑布: 대승폭포 大勝瀑布)도 방문했다.²⁰⁾ 다만 역시 내설악의 필수 유람 장소 중 하나인 오세암(五歲菴)에는 가보지 못했다. 이는 갑자기 날씨가 나빠진 탓이었으며, 홍태유는 이를 안타까워했다.²¹⁾

의 호이다.

18) 任適, <祭耐庵文>, 『老隱集』 권3, 399면.

19) 洪泰猷, <遊雪嶽記>, 『耐齋集』 권3, 66면.

20) 任適, <東遊日記>, 『老隱集』 권3, 394면.

21) 洪泰猷, <遊雪嶽記>, 『耐齋集』 권3, 66면.

III. <유설악기>의 특징

1. 유람의 적극적인 재구성

<유설악기>에서 일단 주목되는 것은 유람의 여정이다. 작품 속 여정은 앞 장에서 보았듯이 내설악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유람의 전체 여정을 상세히 기록한 임적의 <동유일기>를 참고할 때 엄밀하게 말하면 홍태유 일행의 여정은 그들의 거주지인 여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일행이 여주를 출발해 인제에 도착하기까지는 나흘이 걸렸다.²²⁾ 이는 <유설악기>가 이 나흘간의 여정은 생략한 채 그 이후의 여정부터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있다. 이러한 전개는 작품 후반부에도 반복된다. 작품 속에 설악산 유람이 끝나고 다시 여주로 돌아가는 며칠의 여정은 실려 있지 않다. 요컨대 <유설악기>는 앞뒤의 여정은 생략하고 설악산 유람을 중심으로 작품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람 전체가 아닌 주요 목적지에 대한 유람을 중심으로 작품을 전개하는 것은 유기(遊記)에서 많이 발견되는 모습인데,²³⁾ 이는 작품의 전개가 산만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그 제목에 상응하게 초점화되어 진행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홍태유도 이러한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이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여정의 생략은 특정 지역을 소재로 한 유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볼 점은 아니다. 그런데 <유설악기> 속 여정의 생략은 이러한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설악산과 그 주변을 유람하는 과정을 전개하는 데도 생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계폭포를 유람한 것이 생략된 점을 들 수 있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임적의 <동유일기>에 따르면 당시 홍태유 일행은 한계폭포도 유람했다. 그러나 <유설악기>에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임적은 한계폭포를 두고 ‘천하기관(天下奇觀)’이라고까지 말했다.²⁴⁾ 이러한

22) 홍태유 일행은 9월 1일 여주를 출발해 지평(砥平)과 홍천(洪川) 등지를 거쳐 4일 인제에 도착했다(任適, <東遊日記>, 『老隱集』 권3, 392면).

23) 예컨대 앞 장에서 언급한 김수증의 <유곡연기> 또한 인제에 도착한 이후 설악산 곡백연과 그 일대를 유람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평가를 받는 폭포임에도 불구하고 홍태유가 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전근대 시대에는 내설악에 해당하는 권역을 ‘한계산(寒溪山)’이라 일컫기도 했다.²⁵⁾ 그러나 홍태유는 대승령을 경계로 설악산과 한계산을 엄격히 구분하고, 한계폭포를 한계산에 속한 승경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한계폭포를 설악산이 아닌 다른 산에 있는 승경이라 여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홍태유가 유람 당시 지은 시에서 설악산과 한계산이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해 사용하고 있는 점,²⁶⁾ 그리고 뒤에 살펴보겠거니와 그가 <유설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설악의 명승지들을 꼽을 때 한계폭포는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이 그 설득력을 높여 준다.²⁷⁾ 그렇다면 결국 이 생략 또한 초점화된 작품 전개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유기에 유람 과정에서 목도한 주요 유람지 주변 승경에 대한 내용이 덧붙여 있는 것은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다. 김수증의 경우 <유곡연기>에서 곡백연(曲百淵), 즉 곡백담으로 가는 도중 본 한계폭포의 광경을 묘사한 바 있다. 따라서 홍태유가 <유설악기>에서 주요 유람지 부근에 있는 한계폭포를 다루는 것도 별반 문제될 것이 없다. 실제로 홍태유도 주요 유람지 주변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 본격적인 설악산 유람은 곡백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유설악기>의 도입부에 나오는, 인제에서 갈역촌까지 가는 과정에서 목도한 주변 산수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부분은 주요 유람지 주변의 승경에 대한 내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보면 홍태유가 한계폭포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은 점이 의아함을 자아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천하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은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한계폭포가 웅장함을 자랑하는 승경이

24) “(…) 行五里餘, 到紫烟臺. 對臺百餘步, 有寒溪瀑. 瀑高數百丈, 自石上直瀉空中, 飛流噴碎, 頃刻萬狀, 誠天下奇觀也.”(任適, <東遊日記>, 『老隱集』 권3, 394면)

25) 김세호, 『조선시대 설악산 대승폭포의 문화사』, 『인문과학연구』 제60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9면 참조.

26) <鳳頂菴> 제3수의 “緣溪上雪巖, 溪盡小菴開”라는 구절과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向寒溪山中>이라는 제목의 시를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洪泰猷, 『耐齋集』 권1, 24면).

27) 홍태유가 다시 유흥굴로 돌아온 다음 “유람하는 일 또한 여기에 이르러 끝났다”(遊事亦至此而窮矣)라고 하여, 사실상 설악산 유람이 그곳에 도착함으로써 끝났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도 그 방증이 될 수 있다(洪泰猷, <遊雪巖記>, 『耐齋集』 권3, 66면).

라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이것이 주요 유람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듯 가볍게 서술할 수 있는 것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유곡연기>에서도 한계폭포 관련 부분은 단일 승경을 대상으로 한 것치고는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며, 작품 전체로 볼 때도 정체를 발하는 대목 중 하나이다.²⁸⁾ 홍태유는 바로 이 점을 염려한 듯하다. 한계폭포를 다룰 경우 주요하게 다뤄야 할 대상인 설악산 승경이 본의 아니게 빛을 잃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홍태유가 한계폭포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은 것에는 설악산 승경에 대한 기록으로 핵심 내용을 채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보면 <유설악기>는 주요 유람지 중심의 작품 전개를 매우 철저한 수준에서 관철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홍태유는 일종의 ‘유람의 재구성’ 방법을 활용해 작품을 전개했다. 그런데 이러한 ‘유람의 재구성’은 여정의 생략 이외에 다른 형태로도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유람의 기간이다.

<유설악기>를 보면 여정 도중 숙박한 사실이 오직 봉정암 관련 부분에서만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는 설악산 유람이 2일 여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런데 임적의 <동유일기>를 보면 동일한 여정이 실제로는 4일에 걸쳐 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⁹⁾ 이를 통해 <유설악기>에서는 유람의 기간이 실제와 달리 압축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³⁰⁾

이러한 유람 기간의 압축은 자연스레 홍태유가 실제 방문했던 일부 장소들을 작품 속에서 생략했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하게 만든다. 과연 그러한가? 이것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일록체 유기인 <동유일기>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28) 해당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或去輿，寸寸而登，飛流忽入眼矣。至一岡頭，俯視懷樵。越見瀑布，自北而來。左右蒼壁，無慮千百仞，飛流當中直下。曾有人下繩度其長，可數百丈。雨餘水勢，益壯噴沫，因風裊娜，如霞如霧，如絲如煙，頃刻萬變。下潭冰雪猶凝。縱觀良久。創名所坐巖曰紫煙臺。”(金壽增, <遊曲淵記>, 『谷雲集』 권4, 한국문집총간 125, 223면)

29) 그 구체적인 여정을 <동유일기>에 의거해 날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월 5일: 인제에서 출발해 갈역촌까지 감. 6일: 갈역촌에서 출발해 심원사까지 감. 7일: 심원사에서 출발해 봉정암까지 감. 8일: 봉정암에서 출발해 심원사로 돌아옴. 이상의 여정은 任適, <東遊日記>, 『老隱集』 권3, 392~394면 참조.

30) 다만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면 홍태유가 그에 앞서 이미 최소 한 차례는 숙박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홍태유는 심원사 관련 부분에서 그 부근을 흐르는 시냇물을 두고 “맑은 밤 그 소리가 더욱 들을 만하다”(清夜尤有聲可聽)라고 했다(洪泰猷, <遊雪嶽記>, 『耐齋集』 권3, 65면). 그가 이러한 사실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심원사에 묵으며 밤에 직접 그 소리를 들어봤기 때문일 것이다.

비교 결과 두 작품에서 방문한 곳으로 언급되는 설악산 승경들이, 약간 출입이 있기는 하지만,³¹⁾ 대체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홍태유가 유람의 기간만 압축했을 뿐 설악산 유람의 여정 자체를 크게 생략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즉 홍태유는 이틀이라는 기간으로 설악산 유람을 재구성한 것이다. 왜 이렇게 한 것일까?

속박 사실 같은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은 해당 유람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분명 도움을 준다. 그러나 유람의 기간이 길지 않은데 속박 사실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은 자칫 유람이 자주 단절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다. 홍태유는 이 때문에 다소 길지도 짧지도 않은 2일로 유람 기간을 압축함으로써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한 것이라 판단된다. 다시 말해 유람을 밀도 있게 제시함으로써 유람의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들고자 한 것이다.

2. 산수미 부각을 위한 다양한 방법적 모색

다음은 설악산 유람에 대한 내용이 모두 끝난 다음 홍태유가 작품을 마무리하며 내놓은 논평의 일부이다.

[설악산은] 그 북쪽으로는 양양이고 그 남쪽으로는 인제이다. 양양의 승경으로는 식당폭포(食堂瀑布)와 계조굴(戒祖窟)을 일컫는데 이것들은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다. 인제의 승경으로는 곡백담, 심원사, 삼연정사, 십이폭포, 봉정암, 폐문암을 일컫는데 이것들은 모두 내가 이미 자세히 본 것이다. 봉우리와 천석(泉石)의 기이함을 논하면 십이폭포가 으뜸이다.³²⁾

홍태유는 설악산의 승경, 그중에서 내설악의 대표적 승경으로는 6개를 제시하고 있다. 곡백담, 심원사, 삼연정사, 십이폭포, 봉정암, 폐문암이 그것들이다. 이 6개의 승경들은 홍태유가 직접 방문했던 곳이며, 그가 방문한 모든 곳 중에

31) 예컨대 입암(笠巖)의 경우 <동유일기>에만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유홍굴의 경우 <유설악기>에만 보인다.

32) “其陰則襄陽，其陽則麟蹄。襄之勝，稱食堂瀑、戒祖窟，而余未見者。麟之勝稱曲百潭、深源寺、三淵精舍、十二瀑、鳳頂菴、閉門菴，而皆余之所已詳者。若論其峯巒泉石之奇，十二瀑爲最也。”(洪泰猷 <遊雪嶽記>，『耐齋集』 권3, 66면) ‘食堂瀑’은 신흥사(神興寺) 남쪽에 있는 폭포이다.

서 상대적으로 훌륭하다고 여겨져서 선택되었을 터이다.³³⁾

<유설악기>는 이 6개의 승경들을 하나하나 방문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홍태유는 그 전개 과정에서 해당 승경들이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여기서는 그 노력이 두드러지는 몇 개의 부분들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도입부이다. 이 부분은 6개의 승경 중 한 곳을 다룬 대목은 아니지만 논의 전개상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제현에서부터 동북쪽으로 30리를 가자 삼차령에 도착했다. 고개를 넘으니 골짜기가 깊어졌다. 양쪽의 산이 벽처럼 우뚝한 중에 나무가 뺨뺨해 숲이 무성하니 아래서 올려다보면 하늘이 겨우 한 필의 베 같았다. (….) 조금 내려가 평평해지자 시냇물이 점점 불어나고 왕왕 질푸른 바위가 나오기도 했다. 몇 리 못 가 큰 시냇물을 만나 서쪽으로 흘러다가 합쳐지니 곧 곡백담의 하류이다. 기슭은 흰 조약돌 천지이다. 평지는 소나무 천지인데 나무가 나이 들고 무성하다. 소나무가 다하자 밭이 나오기 시작했다. 밭 부근의 여덟아홉 집이 모여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있으니 곧 난계역이다. 또 10여리를 가서 시내를 건너자 갈역촌이 나왔다. 마을은 더욱 쓸렁한데 집은 모두 판자로 지은 것들이다. 마을 앞이 고갯길과 통하여 장사치가 끊이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순박하고 정성스러우니 그 품성이 길가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 이곳을 지나면 오솔길에 가파른 바위가 많아 말을 탈 수 없기에 비로소 나막신을 신고 갔다.³⁴⁾

앞 절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 부분은 인제부터 갈역촌에 이르기까지의 서사를 담고 있다. 그리고 그 도중에 목도한 산수, 예컨대 하늘을 가리고 있는 울창한 숲과 장엄한 바위가 널려 있는 시내 등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다. 도입부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 묘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인상적인 이 대자연에 대한 묘사는 독자로 하여금 앞으로 유람이 본격적으로

33) 유흥굴처럼 방문은 했으며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34) “由麟蹄縣東北行三十里，抵三義嶺，既踰嶺則谷甚深，兩山壁立，樹密而林鬱，自下視天，僅如匹練然。(…)稍下而平，溪水漸大，往往有蒼然之石。未數里，值大溪水，西流而合，即曲百潭下流也。岸皆白礫，平地皆千章之松，蒼老鬱然。松盡而始有田，田上八九家，聚成一村，即園溪驛也。又行十里餘，渡溪得葛驛村。村居益寥落而皆板屋，前通嶺路，商賈不絕，而尚能淳款，不似路傍人風也。過此則逕多巖之石，不可以馬，始理履而行。”(洪泰猷, <遊雪嶽記>, 『耐齋集』 권3, 65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펼쳐질 설악산 승경의 모습이 결코 범상치 않을 것임을 예견하게 해준다. 아울러 “곧 곡백담의 하류이다”라는 구절도 주목할 만하데, 이 구절은 곡백담에 도착해 설악산 유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의 첫 문장인 “마을[갈역촌] 앞에서부터 시내를 따라 들어가자 몇 보 못 가 곡백담이 나왔다”와 조응하며,³⁵⁾ 점차 설악산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 이처럼 도입부는 설악산과 그 승경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음악으로 치면 서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³⁶⁾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곡백담에 도착해 설악산 유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목이다.

마을[갈역촌] 앞에서부터 시내를 따라 들어가자 몇 보 못 가 곡백담이 나왔다. 홀연 우뚝한 봉우리가 바라보이는데 천 길로 높디높게 솟은 모습이 마치 죽순이 막 나오는 듯하여 몹시도 기이하다. 그 아래는 맑은 못인데 못가에는 흰 바위가 있다. 물은 평평하게 펼쳐져 흐르는데 수십 마리 물고기가 유유히 놀고 있다. 이로부터 산세가 한 번 바뀌고 물이 한 번 굽어지면 바위가 한 번씩 기이함을 드러냈다. 그리하여 얇은 못이 되거나 짙푸른 못이 되기도 하고, 수렴(水簾) 폭포가 되거나 내뿜는 폭포가 되거나 누워 흐르는 폭포가 되기도 하고, 너럭바위가 되거나 첩첩의 벼랑이 되기도 했는데, 앉아서 완상할 만한 것을 전부 세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설악산의 사소한 경치일 뿐이다. 그러나 그 수석(水石)의 장대함이 벌써 사람의 흥금을 시원하게 해줬다.³⁷⁾

곡백담은 지금의 백담계곡에 해당한다.³⁸⁾ 이 단락의 백미는 바위들이 산세와 수세가 바뀔 때 따라 그것들과 어우러져 펼쳐 보이는 천대만상의 풍경

35) “自村前循溪而入，未數步，得曲百潭。”(洪泰猷，〈遊雪嶽記〉，『耐齋集』 권3, 65면)

36) 한편 도입부와 관련해 또 하나 언급하고 넘어갈 점이 있다. 그것은 별다른 설명 없이 바로 유람이 시작되는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도직입적인 전개는 여타의 유기에서 그에 앞서 보통 간단하게라도 유람의 배경 등을 미리 제시하는 것에 비해 다소 불친절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독자가 작품의 시작과 더불어 유람에 곧장 몰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37) “自村前循溪而入，未數步，得曲百潭。忽瞻特峯，羸羸然千丈直聳，如竹筍之初生，奇已甚矣。其下澄潭，潭上白石，水平鋪而流，有魚數十，方洋洋而遊。自是山一回水一曲，石一逞奇，而爲淺潭爲深綠之潭，爲水簾爲噴瀑爲臥流之瀑，爲盤石爲疊壁，可坐而可玩者，殆不可周數也。此猶雪嶽之淺境耳。其水石之壯，已爽人襟抱矣。”(洪泰猷，〈遊雪嶽記〉，『耐齋集』 권3, 65면)

38) 이 사실은 권혁진, 『설악인문기행』 1, 산책, 2016, 23면 참조.

을 묘사한 부분이다. 이러한 묘사는 김수증의 <유곡연기>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홍태유는 그 묘사 과정에서 구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원활한 논의를 위해 해당 부분의 원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自是山一回水一曲, 石一逞奇,
 而爲淺潭爲深綠之潭,
 爲水簾爲噴瀑爲臥流之瀑,
 爲盤石爲疊壁,
 可坐而可玩者, 殆不可周數也.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밑줄 친 구절이다. 홍태유는 이 구절들에서 ‘爲~’ 형태의 구를 병렬하고 있는데, 이는 곡백담의 산수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풍경들의 퍼레이드를 보여주기엔 적합한 구법이다. 그런데 이 구절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것이 단순한 병렬로 이루어지지만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홍태유는 그 병렬 과정에서 구법상 일정한 변화를 주고 있기도 하다. ‘爲~’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되 ‘爲○○’와 ‘爲○○之○’의 두 종류 구를 번갈아 구사한 점, 다음 구절로 넘어갈 때마다 구를 가감한 점이 그것이다. 즉 홍태유는 규칙성 속에 불규칙성을 가미한 것이다. 이러한 구법은 풍경들의 퍼레이드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무쌍한 면모와 조응하며 그것이 한층 잘 구현되도록 만들어 준다.

다음으로 인용문의 전체 맥락도 눈여겨 필요가 있다. 홍태유는 곡백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 노력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그럼에도 이것들은 설악산의 사소한 경치일 뿐이다”라는 문장을 삽입하며 돌연 문세를 전환시킨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그러나 그 수석(水石)의 장대함이 벌써 사람의 흥금을 시원하게 해줬다”라는 문장을 통해 다시 한 번 문세를 전환시키며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다. 요컨대 억양법(抑揚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홍태유는 이를 통해 내용상 기복을 주고, ‘높임’[揚]으로 끝을 맺음으로써 종내 대상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것들은 설악산의 사소한 경치일 뿐이다”라는 문장은 또 다른 측면에서 흥미해 볼 여지가 있다. 앞서 도입부에 담긴 설악산 주변 산수 묘사가 추후 설악산의 승경들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을 암시해 준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문장은 그것을 이어받아 앞으로 이어질 설악산 유람 과정에

서 곡백담에서 본 것들보다 더욱 빼어난 승경들이 나타날 것임을 암시해 주는 표지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문장은 도입부와 마찬가지로 독자 앞으로 펼쳐질 승경들의 아름다움을 기대하게 만든다.

한편 백담사(百潭寺)의 전신이라 할 만한 심원사에 대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³⁹⁾

또 시내를 따라 5리를 가니 심원사가 나왔다. 그 앞 봉우리는 꽤 기이하고 험준하다. 골짜기의 시내는 세찬데 맑은 밤 그 물 소리가 더욱 들을 만하다.⁴⁰⁾

심원사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전부이다. 홍태유가 언급한 6개의 승경을 다룬 부분 중에서 그 분량이 가장 적다. 그런데 이 부분, 그중에서도 심원사 주변 시내에 대한 문장은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상당히 있다. 일단 이 문장은 맑은 밤 산사에 고즈넉이 앉아 물소리를 듣고 있는 정경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떠올림으로써 마음을 청량하게 해주기도 하고 마음 속 묵은 때를 깨끗하게 씻어주기도 한다. 이처럼 이 문장은 함축적인 동시에 심원한 운치와 뜻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유장한 여운을 준다.⁴¹⁾

홍태유는 앞서 살펴본 부분들에서는 주로 시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대상의 아름다움을 부각시켰다. 그런데 심원사의 경우 청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대상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설악산이 지닌 아름다움의 범위를 국한시키지 않고 그것을 넓히려는 시도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심원사는, 설악산을 유람한 이들의 작품들에서 그 이름이 종종 언급되기는 하지만, 승경으로 여겨진 곳은 아니었던 듯하다. 임적도 심원사에 대한 기록을 남기긴 했지만, “승려 광학(廣學)은 사람됨이 청수(淸雋)한데 언사 또한 들을 만했다”라고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⁴²⁾ 그곳에 거주하는 승려들의 존재를 부각시켰을 따름이다.⁴³⁾ 이를 고려하면 당시 심원사에는 크게 주목

39) 심원사가 백담사의 전신 격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권혁진, 앞의 책, 55면 참조.

40) “又循溪行五里，得深源寺。前峯頗奇峻。溪流激激然，清夜尤有聲可聽。”(洪泰猷, <遊雪嶽記>, 『耐齋集』 권3, 65면)

41) 봉정암 부분도 다음과 같이 한밤중 모습을 다루긴 했지만 도리어 큰 여운을 주지는 못한다. “初至時，林巒寂然而已。及夜半，風大作，萬竅俱號，巖壑爲動，然天色清明。上下未必如此，蓋亦處地高，海風相激而然也。”(洪泰猷, <遊雪嶽記>, 『耐齋集』 권3, 66면)

42) “僧廣學作人淸雋，言辭亦可聽。”(任適, <東遊日記>, 『老隱集』 권3, 394면)

할 만한 유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듯하며, 이것이 유람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지하다. 또 유람객들의 관심이 정상 부근에 위치한 봉정암에 쏠림으로써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태유가 주변 산수와의 관련을 통해 심원사를 설악산 승경으로 부각시킨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일이 될 수 있다.⁴⁴⁾

이제 십이폭동에 들어가 십이폭포까지 둘러보는 과정을 담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로 십이폭동은 현재 구곡담계곡이라 불리는 곳에 해당한다.⁴⁵⁾

굴[유홍굴]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비탈길 하나를 돌아가자 십이폭동에 들어섰다. 그 수석의 빼어남은 곡백담과 비슷하되 더더욱 맑고 투명하고 좌우의 설봉(雪峰: 눈처럼 흰 봉우리)은 삼연정사에 본 것과 비슷하되 더더욱 기이하고 장대하다. 그 사이에 있는 높은 봉우리와 벼랑은 모여 솟은 채 겹겹으로 겹쳐 있다. 나무는 모두 단풍인데 가을을 맞아 선홍빛으로 물든 것이 마치 그림병풍을 장식하고 자수병풍을 벌여놓은 듯하다. 그 현란하고 특별함이 사람을 놀라고 기뻐하게 할 만하다. 매번 앉은 곳에서 돌아보며 차마 떠나지 못하니 이 골짜기에 들어와 십 수리를 오르내리는 동안 시간을 잊은 적이 많다.

느지막이 십이폭포에 이르렀다. 모두 윗부분은 폭포이고 아랫부분은 못이다. 물살이 자유분방하고 빨라서 형세가 격렬하고 소리가 힘차다. 네 번째 폭포 위로는 세 개의 폭포가 서로 이어져 명주를 펼쳐 놓은 듯 물이 흐른다. 중간이 좁아 도랑을 이루는데 [물이 그곳을 통과해] 못으로 쏟아진다. 못은 새까만 빛으로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다. 첫 번째 폭포는 좌우에서 쌍으로 흘러내린다. 오른쪽 것은 길이가 거의 백 척이고, 왼쪽 것은 길이가 삼분지일 쯤이다. 그 사이가 수십 보도 안 되는데 쌍무지개가 마주보며 햇빛에 반짝이고 있다. 아래의 바위가 모두 미끄러운 탓에 가까이 가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른쪽에는 앉아서 바라볼 만한 약간 평평한 바위가 있다. 폭포와 떨어진 거리가 먼데도 훑날리는 물방울이 안개처럼 공중에 가득하여 사람의 옷자락을 적시고도 남는다. 그 기이함을 좋아하는 나머지 배회하며

43) 김수증의 <유곡연기>에도 심원사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임적이 만났다는 광학이라는 승려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金壽增, <遊曲淵記>, 『谷雲集』 권4, 한국문집총간 125, 223면). 김장흥의 문집에서도 심원사에 대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44) 이처럼 주변 산수와의 관련을 통해 사찰을 승경으로 부각시키는 모습은 홍태유의 다른 작품에서도 발견되는데, 그 예로는 여주 묘련암(妙蓮菴)에 대한 일련의 권선문(勸善文)을 들 수 있다.

45) 권혁진, 앞의 책, 131면 참조.

버리기 어려웠지만 너무 서늘하여 오래 머무를 수 없었다.⁴⁶⁾

이 부분에서 일단 주목되는 점은 설악산 산수의 다양한 면모가 그 어느 부분보다 풍부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맑고 투명한 수석, 기이하고 장대한 설봉, 가을을 맞아 선홍빛으로 물든 단풍나무 숲, 무지개처럼 반짝이며 공중 가득 안개 같은 물방울을 만들어내는 쌍폭(쌍룡폭포) 등이 그것들이다. 이것들은 4자구 중심의 정돈된 구법을 통해 그 주요한 특징들을 중심으로 스케치하듯 간략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묘사들이 하나하나 쌓임으로써 이 부분은 마치 설악산 산수의 종합세트 내지 종합체와 같은 느낌을 준다. 이를 통해 홍태유가 십이폭동 구간을 설악산[내설악] 산수의 정수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으로 부각시키려 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바 그가 작품의 말미에서 “봉우리와 천석(泉石)의 기이함을 논하면 십이폭포가 으뜸이다”라고 논평한 것과는 조응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이 부분이 작품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 부분은 유람의 서사 전개상 한 중간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이 부분이 작품의 절정에 해당하는 대목이자 설악산[내설악] 산수의 정수들을 담고 있는 대목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상들에 대한 곡진한 묘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은 이 부분이 갖는 결점처럼 보일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유설악기> 안에서 승경별로 차지하는 분량이 서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안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장 분량이 많은 곳은 바로 이 부분이다. 만일 이보다 곡진한 묘사를 하고자 한다면 분량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분량의 안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홍태유는 이 점을 고민하고 나름의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46) “由窟而右轉一危磴，入十二瀑洞。其溪石之勝，類曲百潭，而愈益清瑩；左右雪峯，類三淵舍所見，而愈益奇壯。間有高嶂絕壁，攢聳重疊。樹皆楓栝，方秋鮮紅，如畫障而列繡屏，炫煥詭特，令人可驚而可喜。每坐處，眷顧不忍去，入此洞上下十數里之間，失晷為多也。晚乃到十二瀑，皆上瀑下潭，橫放峻瀉，勢激聲壯。第四瀑以上，三瀑相連，流如布練。中狹成槽而墜之潭，其色正黑，不可測其深也。第一瀑，左右雙流，右長幾百尺，左長三減其一。間又不能數十步，而雙虹相對，耀日炫彩。下石皆滑，不可迫視。右邊有巖，稍平可坐而望，去瀑遠，飛沫淒淒，漫空霧靄，尚能潤人衣裾，雖愛其奇徘徊難捨，而過清不可久也。”(洪泰猷 <遊雪嶽記>，『耐齋集』 권3, 65~66면)

이와 관련해, 십이폭동에 들어간 뒤 목도한 수석과 봉우리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는, 첫 단락의 두 번째 문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홍태유는 “맑고 투명하다”와 “기이하고 장대하다”와 같은 주관적 평가가 담긴 말을 통해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이 문장은 대상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이하 대상들에 대한 그것들보다 더욱 문제가 있는 듯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 홍태유는 그 묘사의 과정에서 곡백담의 산수 및 삼연정사 부근의 산수를 다시 호출하고 있는데, 설악산의 수석과 봉우리에 대한 객관적 묘사는 이들에 대한 부분에서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곡백담과 삼연정사의 호출은 자연스럽게 이들에 대한 묘사를 연상하게 만든다.⁴⁷⁾ 이러한 연상 유도는 동어반복적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묘사의 부족함을 메꿔 준다. 홍태유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분량의 안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묘사의 풍부함을 확보했던 것이다.

한편 십이폭포를 둘러본 뒤 봉정암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서술한 부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왼쪽 폭포를 통해 남쪽 벼랑으로 오른 다음 그 상류를 따라 가는데 길이 끊겨 어찌할 방법을 몰라 오랫동안 헤맸다. 홀연 시냇가가 보이고 그곳 바위에 돌무더기가 있는데 분명 무언가 뜻이 있는 물건 같았다. 수종한 승려가 “이것은 수행하러 들어가는 승려가 전에 오갈 때 쌓아 두고 길의 표식으로 삼은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로부터는 가는 길이 의심스러운 곳마다 모두 [이러한] 돌무더기가 있는 덕분에 헤매지 않았다. 그러나 길이 더욱 험준해져 우거진 초목을 헤쳐 나가고 벼랑을 올라야 했는데 지팡이를 짚으며 발을 조심해야만 간신히 넘어지는 것을 면했으니 평소 산수에 마음을 둔 신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면 오고자 해도 불가능할 것이다. 20리를 가고서도 아직 깊은 산과 뾰뾰한 숲 속을 벗어나지 못했거늘 어둑어둑 황혼이 드리우고 있었다. 벗어날 방법을 몰라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찰나 작은 암자 하나가 바위 봉우리들 사이에서 보였다 안 보였다하니 친구를 만난 듯 나도 모르게 마음과 눈이 모두 밝아졌다.⁴⁸⁾

47) 참고로 삼연정사 부근의 봉우리를 묘사한 대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由寺而東僅數里, 得金三淵精舍. 其異者直書樓, 有峯一帶橫開, 如獸蹲, 如禽顧, 如人冠冕而行, 其狀百千.”(洪泰猷, <遊雪嶽記>, 『耐齋集』 권3, 65면) ‘寺’는 심원사를 이른다.

48) “由左瀑而南登崖, 又下循其上流而行, 路斷不可尋, 彷徨者久之. 忽見溪上, 巖有累石, 若不無意者. 從僧言: ‘此入定僧前往還時所置, 以爲路標也.’ 由是以往路疑處, 輒皆有石, 賴以不迷. 然

이 부분은 길을 잃고 해맨 끝에 해질 무렵 간신히 봉정암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유기에는 유람 도중 겪는 고난을 담고 있는 부분이 왕왕 등장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작품의 편폭을 고려할 때 그 분량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부분의 분량은 어지간한 승경을 다룬 부분의 분량 못지않다. 이러한 점에서 이 부분은 필요 이상의 분량이 할애된 대목처럼 보일 수 있다. 홍태유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은 절정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이다. 절정 이후 유람의 분위기는 필연적으로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방지할 경우 다음 승경을 다룬 부분은,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차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홍태유는 이 점을 염려했음 직하며, 이 부분은 이러한 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는 길을 잃었다가 찾고, 다시 길을 잃었다가 찾는 과정이 담겨 있다. 홍태유는 이처럼 서사에 기복을 줌으로써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어둑어둑 황혼이 드리우고 있었다”와 같은 시간적 배경을 보여 주는 구절은 그 긴장감을 배가시켜 준다. 한편 독자는 이 부분을 읽는 과정에서 작자 홍태유가 겪는 고난에 감정이입하며 그가 다음 승경이자 그날 최종 목적지인 봉정암에 무사히 도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봉정암이 나타나는 장면에 다다르면 작자 못지않게 대상에 대한 반가움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 반가움은 자연스레 봉정암이라는 대상에 대한 관심으로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을 터이다. 요컨대 홍태유는 작품 전개의 긴장감을 유지시키며 독자가 이어서 등장할 승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 이 부분에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했던 것이다.

3. 설악산 산수에 대한 관심 제고

지금까지 유람의 구성 방법과 산수미를 드러내는 방법의 측면에서 <유설악기>를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의 논의를 염두에 두며 작품의 창작

益峻險，披蒼翳攀崖石，扶杖愼足，而後僅免顛仆，非雅意山水有濟勝具者，雖欲至而不能也。行二十里，尚不離乎窟山亂林之中，而暝色已蒼蒼然起矣。方憂恐不知所出，而忽有一小菴隱見於巖巒間，不覺心眼俱明如逢故人矣。”(洪泰猷，〈遊雪嶽記〉，『耐齋集』 권3, 66면)

의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작품 말미의 일부이다.

나는 많은 명산을 보았는데 금강산만이 이 산과 비견될 수 있다. 다른 산 중에는 이 산에 필적할 것이 없다. 그러나 금강산의 이름은 중국에도 전파되었는데 이 산의 빼어남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아는 자가 적으니 이 산은 실로 산 중의 은자(隱者)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처럼 그 빼어남을 자세히 서술하여 향리의 벗들에게 과시하고 또 세상에서 이름난 산수를 구하되 전부 알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쳐주려 한다.⁴⁹⁾

홍태유는 설악산을 금강산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산으로 여기고 금강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악산의 빼어남이 덜 알려진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설악산의 빼어남을 주변 사람들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작품을 지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즉 자신의 작품을 통해 설악산의 가치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설악산에 대한 홍태유의 생각이 금강산을 비롯한 전국의 산을 두루 유람한 경험에 의거해 개진된 것이라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어떤 곳이 빼어나다 해도 이곳보다는 못할 것이다’ 식의 관념에 의거한 생각, ‘아무개의 말에 따르면 이곳이 어떤 곳에 못지않다’라는 식의 타인의 경험에 기댄 생각보다 훨씬 높은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홍태유가 알리고자 한 가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기가 보여주는 특징으로는 크게 “1) 산수의 아름다움, 장엄함, 기묘함에 대한 경탄, 2) 풍속, 지리, 고적, 설화에 대한 관심”으로 나눌 수 있다.⁵⁰⁾ 이에 의거할 때 <유설악기>는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유설악기>는 첫 번째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번째와 더욱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들, 예컨대 심원사와 봉정암과 같은 사찰에 대한 부분에서도 유물보다는 주변 산수의 아름다움 또는 그 산수를 통해 얻는 정취가 주요하게 부각

49) “余見名山多矣。惟金剛可與此山相伯仲，其他無有能與抗者。然金剛名播中華，而此山之勝，雖東人，知者蓋寡，則此山實亦山之隱者也。故余詳敘其勝如此，將以誇視鄉里之朋遊，而又開夫世之名山水而未盡知者。”(洪泰猷, <遊雪嶽記>, 『耐齋集』 권3, 66면)

50) 박희병, 『한국산수기 연구: 장르적 특성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8집, 한국고전학회, 1993, 216면 참조.

되고 있다. 삼연정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정사는 인문지리적 장소보다는 설악산 봉우리들의 천태만상을 잘 조망할 수 있는 곳, 즉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완상하기에 적합한 곳으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오세암처럼 방문하지 못한 곳에 대한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홍태유는 이 부분에서 다른 문인들과 달리, 오세암의 유래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오세암은) 봉우리의 기이하고 수려함이 삼연정사에서 본 것을 전부 갖추고 있으면서도 더욱 낫다고 한다”라고 하여,⁵¹⁾ 그 부근 산수의 아름다움만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⁵²⁾

요컨대 홍태유의 관심은 설악산 산수들을 주요 소재로 삼아 그 무엇보다 그것들이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데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홍태유가 세상에 알리고자 한 것이 설악산 산수미의 가치임을 알려준다.⁵³⁾

그렇다면 홍태유의 이러한 노력은 과연 실효를 거두었을까? <유설악기>는 후대 문인들에게 일정한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이 저술한 <기관동산수(記關東山水)>의 ‘설악(雪嶽) 조이다. 이 글에서 주목되는 부분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雪嶽極高峻, 八月始雪, 至夏始消, 名雪嶽. ①其陰則襄陽, 其陽則麟蹄. 襄之勝, 稱食堂瀑, 繼祖窟. 麟之勝, 稱曲百潭, 深源寺, 三淵精舍, 十二瀑, 鳳頂菴, 閉門菴.

(설악산은 매우 높고 험준하다. 8월에 처음 눈이 내려 [이듬해] 여름에야 비로소 녹아서 ‘설악’이라 부른다. ①그 북쪽으로는 양양이고 그 남쪽으로는 인제이다. 양양의 승경으로는 식당폭포와 계조굴을 일컫고, 인제의 승경으로는 곡백담, 심원사, 삼연정사, 십이폭포, 봉정암, 폐문암을 일컫는다.)

深源寺, 由曲百潭屢過危棧, 得一峻嶺, ②又循溪行可五里而至, 前峯頗奇峻, 溪流激激, 清夜尤有聲.⁵⁴⁾

51) “峯巒之奇秀, 盡三淵舍所見而較優云.”(洪泰猷, <遊雪嶽記>, 『耐齋集』 권3, 66면)

52) 두 번째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갈역촌 주민들의 순박함을 언급한 것, 유홍굴 이름의 유래를 밝힌 것, 봉정암 석가사리탑의 존재에 대해 언급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53) 그렇다고 홍태유의 산수 유람이 오로지 미적 체험으로서의 의미만 가졌던 것은 아니다. 산수 유람은 그가 현실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유정열, 앞의 논문, 374~375면 참조.

54) 成海應, <記關東山水>, 『研經齋全集』 권51, 한국문집총간 275, 77면.

(심원사는 곡백담부터 위태로운 잔도를 지나 험준한 고개를 하나 넘고 ②또 시내를 따라 5리 쯤 가야 이르게 된다. 그 앞 봉우리는 꽤 기이하고 험준하다. 골짜기의 시내는 세찬데 맑은 밤에 더욱 소리가 난다.)

①은 구절 출입이 약간 있긴 하지만 <유설악기> 말미에 나오는 설악산 승경에 대해 밝힌 대목과 일치한다. ②는 글자 출입이 약간 있긴 하지만 <유설악기>의 심원사 부분과 거의 일치한다. 즉 성해응은, 홍태유의 <유설악기>를 단순히 참고한 것이 아니라, 작품의 중요한 구절들을 자신의 저술 속에 적극적으로 끌어온 것이다.⁵⁵⁾

이러한 적극적인 인용은 심상하게 볼 사안이 아니라 판단된다. 왜 그러한가? <기관동산수>의 ‘설악’ 조는 설악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해 놓은 글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인용들은, 홍태유의 <유설악기>가 설악산에 관심을 가진 후대 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읽히며, 설악산에 어떠한 승경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떠한 점에 유의해 완상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준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으로서 수용되어 온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이다.⁵⁶⁾ 홍태유는 자신의 바람대로 <유설악기>를 통해 설악산의 가치를 알리는데 일조했던 것이다.

IV. 마치는 글

지금까지 홍태유의 설악산 유람에 대해 개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유설악기>의 특징들을 고찰해 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설악산 유기사에서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설악산 유기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창작된 작품은 문익성(文益成, 1526~1584)의 <유한계록(遊寒溪錄)>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55) 성해응은 특히 자신이 직접 유람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글을 쓸 경우 기존의 성과를 많이 참고했다고 알려져 있다(손혜리, 『연경재 성해응 문학 연구』, 소명출판, 2011, 284면).

56) 한편 다음 삼연정사에 대한 부분 중 짚게 표시한 구절도 <유설악기>의 것을 인용한 것이다: “三淵精舍, 卽永矢菴也, 在寺東數里. 直書樓有峯, 一帶橫開, 如禽獸形. 其狀百千, 色又皎潔. 卽高明峯也.”(成海應, <記關東山水>, 『研經齋全集』 권51, 한국문집총간 275, 77면)

문익성이 1575년 유람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한 것이다.⁵⁷⁾ 이후 설악산 유기가 균을 이루어 본격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를 전후한 무렵 김수증과 김창흡을 비롯한 장동 김씨 문인들에 의해 설악산의 존재 및 그곳의 산수가 조명되면서부터였다.⁵⁸⁾ 이러한 점에서 이 시기는 설악산 유기사에서 분수령에 해당한다. 홍태유가 설악산을 유람한 것은 1709년이다. 그러나 <유설악기>를 창작한 시기는 미상이다. 다만 아무래도 유람을 마치고 곧장 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은 시점에 창작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 <유설악기>는 설악산 유기 창작이 하나의 뚜렷한 흐름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참여한 작품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한편 『유설악기』가 설악산, 그 중에서도 곡백담[백담계곡]부터 봉정암에 이르는 구간의 산수를 다룬 작품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구간은 현재 내설악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로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당대까지만 해도 유람객들은 내설악의 경우 이곳보다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한계폭포와 그 주변을 더욱 많이 찾았던 듯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홍태유가 이 구간을 유람하고 그에 대한 유기를 창작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이 지역을 다룬 유기 창작을 주도한 것도 장동 김씨 문인들이었다. 그것은 이들이 주요하게 유람하고 생활한 곳이 곡백담과 그 주변이었기 때문이다.⁵⁹⁾ 관련 작품으로는 김수증의 <유곡연기>와 김창흡의 <유봉정기(遊鳳頂記)>를 꼽을 수 있다. 다만 <유곡연기>는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곡백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유봉정기>의 경우 다룬 승경들이 <유설악기>와 상당 부분 겹치긴 한다. 그러나 이 작품은 1711년 창작되었다.⁶⁰⁾ 즉 <유설악기>보다 조금 늦게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임적의 <동유일기> 또한 동일한 구간을 다룬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작품은 여주를

57) 20세기 이전에 창작된 설악산 유람 관련 산문들의 목록은 허남옥, 앞의 논문, 338~339면 참조. 다만 이 목록에는 연구자가 밝히고 있듯이 설악산 유람을 주요하게 다루지 않은 작품들도 들어 있다. 그 중 설악산 유람을 주요하게 다룬 최초의 작품이 <유한계록>이다. 한편 문익성의 작품이 나온 이후 17세기 후반까지는 설악산 유람을 주요하게 다룬 작품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

58) 김풍기, 앞의 논문, 354~355면 참조.

59) 이 외에도 이들은 설악산 곳곳을 유람했다. 이후 설악산 유람의 범위가 넓어지는 데에는 이러한 이들의 행위가 큰 역할을 했다. 설악산 유람과 관련해 이들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허남옥, 앞의 논문, 344~345면 참조.

60) 金昌翁, <遊鳳頂記>, 『三淵集』 拾遺 권23, 한국문집총간 167, 109면.

출발해 여주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설악기>에 비해 집중도가 떨어진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유설악기>는 이 구간이 간직한 산수미 및 이 구간을 유람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밝힌 첫 작품일 수 있다. 즉 이 구간을 다룬 유기로서 기념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 작품이 설악산 유기로서 갖는 또 하나의 의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홍태유는 이와 같은 주목할 만한 유기를 창작한 어엿한 문인으로서 각인될 필요가 있다.

설악산 유기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따라서 설악산 유기에 대한 연구를 지금보다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찰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임적의 유기들은 <유설악기>와는 다른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설악산 유기의 또 다른 면모들을 밝힐 수 있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둔다.

참고문헌

1. 자료

- 金壽增, 『谷雲集』, 한국문집총간 125.
金昌翁, 『三淵集』, 한국문집총간 167.
成海應, 『研經齋全集』, 한국문집총간 275.
任 適, 『老隱集』, 한국문집총간 속 66.
洪泰猷, 『耐齋集』, 한국문집총간 187.

『承政院日記』

- 국립수목원 편저, 『국역 유산기』 4, 한국학술정보, 2015.
권혁진·홍하일·최병현·허남욱 편역, 『조선 선비, 설악에 들다』, 문자향, 2015.
심경호, 『산문기행: 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2. 단행본

- 권혁진, 『설악인문기행』 1, 산책, 2016.
손혜리, 『연경재 성해응 문학 연구』, 소명출판, 2011.
이승수, 『三淵 金昌翁 研究』, 이화문화출판사, 1998.

3. 논문

- 구분현, 『耐齋 洪泰猷 漢詩 研究』, 『한국한시작가연구』 제14집, 한국한시학회, 2010, 115~143면.
김근태·이훈, 『설악산 遊記文 원문 및 해제』, 『강원문화연구』 제31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12, 85~120면.
김세호, 『조선시대 설악산 대승폭포의 문화사』, 『인문과학연구』 제60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7~30면.
김풍기,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의 명승의 구성과 탄생: 설악산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제31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3, 333~363면.
박희병, 『한국산수기 연구: 장르적 특성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8집, 한국고전문학회, 1993, 210~232면.
안득용,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山水遊記 研究: 農巖 金昌協과 三淵 金昌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_____, 『金昌翁 <東遊小記> 연구: 可遊者記의 서술 양상과 그 흐름에 대한 고찰을

- 검하여, 『고전과 해석』 제20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6, 175~205면.
- 유정열, 『耐齋 洪泰猷 산문의 주제 의식 연구』, 『어문연구』 제184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351~378면.
- 이경수, 『설악산 대승폭포의 한시 표현』, 『인문과학연구』 제60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31~59면.
- 한 영, 『三淵 金昌翁의 日記體 遊記 研究』,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허남욱, 『조선시대 雪嶽山 遊山記의 개괄적 검토』, 『한문고전연구』 제30집, 한문고전학회, 2015, 335~364면.
- 황인건, 『谷雲 金壽增의 山水文學 研究』,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A Study on Hong, Taeyu's *Yuseorakgi*

Yu, Jeong-yeol

This article reviewed Hong, Taeyu's *Yuseorakgi*, remarkable work of history travelogue to Mt. Seorak. Hong, Taeyu had been immersed in landscape sightseeing after a disaster to a family, toured Mt. Seorak in the fall of 1709, along with the cousin of Im, Jeok, and others. It seems that Hong Taeyu's sightseeing to Mt. Seorak was influenced by the literary men of Jangdong Kim's, such as Kim, Sujeung, and Kim, Changheup.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of *Yuseorakgi*, it was found that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method of reconstructing the sightseeing utilized actively, the development of the work, had centered the sightseeing of Mt. Seorak. Also, it makes the process of sightseeing flow naturally without feeling disconnected. Second, various methods used in terms of description and narrative to effectively highlight the beauties of nature in Mt. Seorak. Third, there is apparent creative consciousness at the base of the work to inform the world of beauties of nature in Mt. Seorak in correspond to the features mentioned above.

This *Yuseorakgi* has the following importance of the history of travelogue the Mt. Seorak. First, it is the work that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creating Mt. Seorak's travelogue in one distinct flow. Second, it is the first systematical work to reveal the way of sightseeing and beauties of nature from Gokbaekdam[Baekdam Valley] to Bongjeongam.

keywords: *Yuseorakgi*, Mt. Seorak, Hong Taeyu, Beauties of nature, Jangdong Kim's,
Reconstruction of sightseeing

접수일자: 2020. 3. 31. 심사기간: 2020. 4. 1.~2020. 5. 10. 게재결정: 2020. 5. 10.
--